

기술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및 해외진출 지원 확대

- 김윤상 제2차관, '24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기술우위의 혁신기업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확대
- 혁신제품 전체 구매목표액을 전년 대비 891억원 증가한 7,698억원으로 설정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3.(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여 ①혁신제품 공공구매 성과제고 방안, ②'24년 혁신제품 지정계획 및 구매목표, ③혁신제품 지정 취소 및 연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윤상 차관은 '20년 혁신제품 지정제도 도입 이후 1,900여개의 혁신제품을 발굴지정하고, 2.8조원 수준의 공공구매를 통해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초기 판로를 지원해 왔다면서, 이제는 혁신제품의 양적성장에 더해 질적성장을 위해 제도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술 차별화를 통해 혁신제품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하였다.

정부는 우선 혁신제품 지정요건 중 기술적 차별성을 평가하는 '신규성'에 대한 배점을 기존 10점대에서 20점 이상으로 확대하여 기술적 우위를 가진 기업의 시장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필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에 기반한 생활밀착형 및 지역문제 해결형 제품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가격·품질이 검증된 유망 혁신제품의 단가계약을 확대 적용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를 통한 구매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실증 확대* 및 해외진출 혁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23) 12억→ '24) 70억원, ** 수출바우처 가점, 해외규격 인증 지원 등

이와 함께 '24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혁신제품 전체 구매목표액을 전년 목표액 대비 891억원(+13.1%) 증가한 7,698억원으로 정하여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윤상 차관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가 혁신제품의 조달시장 문턱을 낮추고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해 주는 중요 정책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모든 관계기관이 혁신제품 제도를 적극 실천하고, 새로운 혁신기업 제품의 발굴에도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책임자	과 장	임재정 (044-215-5230)
	공공조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재경 (jksong14@korea.kr)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실	책임자	과 장	김성환 (042-724-7305)
	신성장조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배철규 (bae79@korea.kr)

